

축 사

산과 들에 봄의 기운이 완연히 깃들었습니다. 이 푸른 날에 포덕 156년 천일기념일을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운 최제우 대신사가 하늘의 가르침을 받아 천도교의 문을 널리 연 매우 기쁜 날입니다. 평소 의지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박남수 교령님 덕분에 저 역시 이 뜻 깊은 자리에 축하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맙고 소중한 마음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서구의 문물과 사상이 동양으로 밀려들던 역사적 격동기에 대신사께서는 깊은 수련 끝에 시천주(侍天主) 사상을 깨닫고 이를 포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의 사상과 대비된다 하여 동학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동양의 인본주의적 전통에 뿌리를 둔 깊은 사유는 마침내 ‘모든 이를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사인여천(事人如天)으로 발전했고 나아가 인내천(人乃天)의 가르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도교의 가르침이 불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불교는 만물이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며 그 상호작용으로 모든 인연이 생겨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우주의 진리를 담고 있는 그 자체로 부처라는 것이나, 내 안에 천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의 사상은 그 이름만 다를 뿐 걸어가는 길은 같은 도반입니다.

또한 모든 종교의 사명은 나를 살피고 내 이웃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가치를 빛나게 하고 그 속에서 내 존재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천도교는 우리나라의 많은 종교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본분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민족의 얼과 정신을 지키고자 노력했고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해 해방을 맞이하고 나라를 되찾는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되살려 천도교에서는 다가오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잇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천도교의 선도적인 활동에 깊은 감사와 함께 이웃의 도반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온통 자본과 물질문명의 기운으로 좌우되는 오늘날에 수운 대신사와 같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은 우리 후학들이 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울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산과 같이 높고 바다와 같이 깊다하였습니다. 산해송심(山海崇深)의 마음입니다. 오늘 천일기념일을 맞아 함께 깊이 새기고 실천의 다짐을 서원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수행과 신심 증진에 큰 진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라는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의 심법(心法)을 더욱 갖고 닦아 자신과 이웃, 우리 사회와 세상에 포덕을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천도교인의 정진이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과 큰 희망을 전해주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정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9년 4월 5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의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